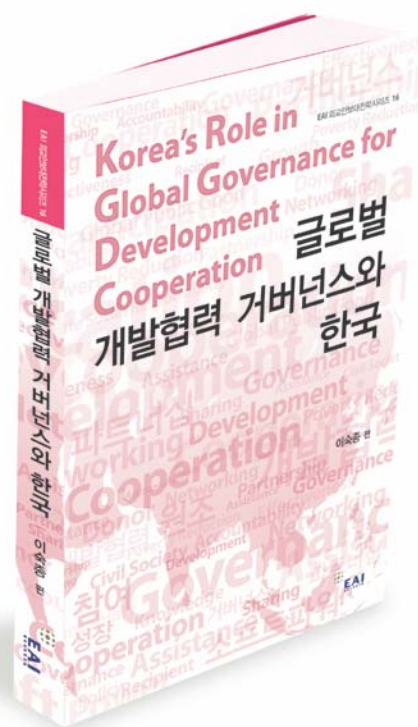


국제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21세기 한국의 개발협력 외교를 위한 제언



글 로 벌 개 발 협 력 거 버 년 스 와 한 국 Korea's Role in Global Govern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편저자_ 이숙종 ■ 발행일_ 2012년 9월 10일 ■ 페이지_ 228쪽
-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 가 격_ 15,000원
- ISBN_ 978-89-92395-25-0 93340
- 문 의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한국, 최빈수원국에서 모범적 공여국으로

한국은 세계의 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11월 25일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부국의 일원이 되었다. DAC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2009년 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0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10월 25일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퍼센트 수준으로 확대, 유무상 비율을 4:6 내외로 구성, 비구속성 비율을 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11년 11월에는 제4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아시아 역내는 물론 개발협력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의 역할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발협력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새로운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 개발협력 분야가 가지는 고유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개발협력 분야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개발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해 놓은 프레임워크를 습득하고 뒤따르는 차원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는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역사적 개괄, 국제 개발협력 아키텍처의 특수성에 기인한 한계와 새로운 전략 개발의 필요성, 국제 개발협력의 역사와 한국의 역할 변화, 오늘날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전략 분석,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할 개발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 이 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의 당사자로 나서는 한국이 국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아키텍처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자 집필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창의적으로 구축해 보려는 국내 인식공동체 조직화에 기여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

서문 중

목차

- 서문 개발협력의 전략 | 이숙중
- 1장 한국 개발협력의 개요와 현황 | 차문중
- 2장 개발협력 아키텍처 | 손 열
- 3장 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 | 구정우
- 4장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 | 이승주
- 5장 한국의 개발협력 의제 | 김태균
- 부록 주요 공식 문건

집필진 약력 (가나다 순)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 한국과 일본의 인권개선 조건》(공편)이 있으며, *Social Forces, Sociology of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Social Science History, Human Rights Quarterly*, 〈한국사회학〉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국내외 인권확산(특히, 공공여론, 미디어, 공식 교육에서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인권에 기반한 개발 정책 수행에 관한 국가 간 비교, ODA 배 분 결정 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 기업의 인권 책임 지수 구성, 국가기관 인권지수 구축, 글로벌 난민이동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일본의 난민정책 변화 요인 분석 등이 있다. 현재 미국사회학 3대 학술지 중 하나인 *Social Force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국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존스홉킨스 고등국제관계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SAI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와세다대학교 고등연구소 조교수와 파리4대학(소르본) 방문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주제로는 국제개발, 국제행정, 비교사회정책, 국제사회정치, 역사사회학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Strategizing Aid,”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공저) “Contradictions of Global Accountability,” “The Welfare State as an Institutional Process,” “The Social Construction of Welfare Control,”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 “개발협력의제의 사회적 구성,” “ODA를 넘어서” 등의 논문과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공저) 등의 단행본이 있다.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학대학원장, 현대일본학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 외국인연구원,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일본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Universal Values and East Asian Community,” “The Post-Crisis East Asia and the Future of Regionalism,” “Securing Trade: The Case of Korea-US FTA”(공저) 등이 있다

이숙중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부르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교수강사, 독일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작에는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The Demise of ‘Korea Inc.’: Paradigm Shift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The Assertive Nationalism of South Korean Youth: Cultural Dynamism and Political Activism,” “Japan’s Changing Security norms and Perceptions Since the 1990s,” “EU와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문화 : 갈등과 협력 논쟁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 연구원, 버클리대학교 APEC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정치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공편) 등이 있다. 그 외 〈한국정치학회보〉,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he Pacific Review*, *Asian Survey*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된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 등이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며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KDI국제정책대학원과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에서 경제학과 교수 및 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였다. KDI에서는 개발협력연구실장,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국제경제, 발전경제, 스포츠·문화경제와 개발협력 분야,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이 많고, 관련 분야의 국제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편·저술로는 “The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 “Gold and the Modern Economy,”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 : 구조적 변화와 정책 과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E A 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데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下
16.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